

강화군, '군민과 함께 만든 화개정원' 13일 정식 개원!



화개산 전망대



화개정원 개원식



화개정원



화개정원 입구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13일 화개정원 개원식을 성황리에 열고 14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였다.

화개정원은 교동대교 개통 이후 접경지역 주민들의 관광자원 개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낙후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화개산 일대에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했다.

14ha 규모에 총 사업비 489억 원을 투입해 5색 테마정원과 스카이 워크형 전망대, 주차장 등을 조성했으며, 정원 및 전망대를 모두 둘러 보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된다.

개원식 행사에는 유천호 군수를 비롯하여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박승한 군의장, 박용철 시의원 등 주요 내빈, 강화군민, 관광객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경과보고, 군수 개원사, 주요 내빈 축사에 이어 인천시 정원의 날 선포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날 인기 트로트 가수 조정민이 축하공연을 선보여 화개정원의 개원을 축하했다.

5월 주말에는 거울버튼, 타투스티커, 달고나 만들기 등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화개정원을 통해 정원문화의 확산과 강화의 아름다운 정원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2,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화개정원 입장료 ▶ 일반 성인 5,000원, 군민 및 할인 대상자는 3,000원
모노레일 탑승권 ▶ 왕복 12,000원

농민지원 예산 3억 3천만원 긴급 추가 편성



강화군청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최근 쌀 값 폭락, 생산비 폭등 등으로 시름에 젖은 농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민지원 예산 3억 3천만 원을 긴급 추가 편성했다.

군은 그동안 농협과 협력해 못자리용 인공상토를 농가에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왔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당초 예산으로는 신청 물량의 전량 공급이 어려워졌다. 이에 군은 2억 2천만 원을 긴급히 편성해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은 이번 추경에 1억 1천만 원을 편성해 과수봉지(지원대상은 포도류, 사과, 배, 복숭아 품목)를 지원한다. 과수봉지는 병해충 방지, 조류로부터의 열매 보호, 햇빛 차단 등 과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크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긴급 예산편성으로 관내의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민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이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안전하고 맛있는 농산물 생산환경을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화군, '제51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및 가족사랑 사진 공모전' 성료



어버이날 행사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8일 강화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제51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을 찾은 어르신 1,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담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어버이날을 축하하였고, 이날 기념식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효를 근본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웃어른을 공경해 이웃에 모범이 되는 효행자 13명에 대한 표창도 수여했다.

또한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가족사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해 선정된



어버이날 행사

10작품에 대한 전시도 함께 이루어져 가족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백두한라 예술단과 초청가수 김성환, 현숙의 위안공연 및 강화군 노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회원들의 난타와 색소폰 공연이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은 공경받기에 충분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고 어르신들의 역할과 위치가 커지는 만큼 어르신들께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PHOTO NEWS



어린이날 물소화기 체험



어린이날 군장비 체험



어린이날 3D펜아트 체험

응급상황발생시, 국가지점번호로 신속구조 요청 강화군, 나들길 11코스, 안전 국가지점번호 설치완료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나들길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나들길 11 코스에 국가지점번호판 17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란 건물이 없는 산악이나 해안가 지역에서 조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전 국토를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나눠 문자 2자리와 숫자 8자리로 조합해 만든 위치 정보 체계다.

군은 2013년부터 재난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등산로와 나들길에 인천 10개 군·구에서 가장 많은 총 794

개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마니산과 나들길(총 20개 코스) 등 지형·지물이 없어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위치정보를 알릴 수 있는 국가지점번호판 설치가 필수다.

강화군은 "각종 긴급상황 발생 시 국가지점번호판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강화를 방문하는 방문객들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화군,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운영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폐업신고를 희망하는 민원인이 군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를 따로 했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한 서비스이다.

폐업 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강화군청 또는 세무서 중 한곳을 방문해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 신고서'만 작성하면 된다.

통합폐업신고 대상 업종은 신청이 많은 생활 밀접형으로 식품관련 영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허가어업, 공중위생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가축사육업, 부동산중개업 등 56개 업종이다.

군은 본격적인 통합폐업신고 추진을 위해 지난 2일 10개 실무부서 민원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해 통합폐업신고 추진절차 등을 논의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의회, 관내 학부모와의 차담회 진행



학부모와의 차담회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는 지난 28일 관내 학부모 대표 5명과 강화군의회의원 7명이 함께 차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를 신청한 학부모 네트워크 정은숙 대표는 에듀버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강화 지역 학생들은 도시지역과 달리 대중교통을 이용한 외부 체험활동을 나가기가 어려운 현실과 체험활동의 경비 대부분이 버스 임차비로 소요되는 상황을 말했다.

함께 참여한 갑룡초등학교, 합일초등학교, 강화중학교, 강화여중 등의 학부모 임원들도 관내 버스의 임차 수급 문제를 지적했다. 학생들이

마음껏 체험할 수 있고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버스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승한 의장은 “강화 관내의 학부모 대표님들과 직접 학교 운영 등에 대해 다양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하며, “오늘 말씀하신 다양한 의견들은 교육청·강화군·각 학교 등이 모두 함께 논의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이기에 다양한 방식의 해결책을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강화군, “안전한 귀갓길 범죄예방” 조명형(LED) 도로명판 설치



조명형도로명판설치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주소안내시설을 활용해 범죄예방을 위한 ‘조명형(LED) 도로명판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안심 귀갓길과 조명이 없는 골목길에 해가 지면 밝은 빛을 내는 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해 시인성을 높이고 범죄 예방과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해당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강화경찰서의 범죄예측 시스템(Pre-CAS·프리카스)을 통해 범죄 발생 우려 지역을 분석하고,



조명형도로명판설치

이를 토대로 지난 3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지를 선정했다.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과 학생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강화여중과 갑룡초교, 합일초교 인근 지역 26개소에 지난 2일 설치를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지는 강화군과 강화경찰서 두 기관이 연계하여 군민이 더욱더 안전할 수 있는 안심 귀갓길 조성과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화 석모도 수목원’ 마니산 치유의 숲에 이어 23년 인천 웰니스 관광지 선정



석모도 수목원 체험

인천시 및 인천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023 인천 웰니스 관광지’ 공모사업에 ‘강화 석모도 수목원’이 선정됐다.

석모도 수목원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해 자문 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21~22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마니산 치유의 숲’에 이어 두 번째다.

웰니스란 육체, 심리, 정신적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과 웰빙을 추구하는 목적의 여행을 말한다.

현재 석모도 수목원은 숲 해설, 유아 숲 체험, 숲 체험 영어교실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군은 이번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되면서 석모도 수목원만의 매력과 특징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모도 수목원은 2019년 5월에 개관했으며, 기후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한 북방한계성 식물 및 해양성 식물연구에 적합한 점을 인정받아 석모도에 자리 잡았다. 수목원은 생태체험관, 고산습지원, 암석원, 전시온실 등을 포함해 12개의 테마원과 총 1,176종, 약 14만 본의 식물이 식재되어 있다.

유천호 군수는 “웰니스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이후 지친 심신을 회복 하는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며, “마니산 치유의 숲과 함께 석모도 수목원을 강화군의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키워나갈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 최백하 기자

노래, 춤, 그림, 색소폰 등... 어른신들의 재능을 뽐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방공연 맞춤 노래자랑’



안방공연 맞춤 재능자랑



안방공연 맞춤 노래자랑



안방공연 맞춤 재능자랑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0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프로그램 ‘안방공연 맞춤 노래자랑’을 진행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안방공연 맞춤 노래자랑’은 지난 4월 참가자를 모집해 총 97명이 참가했다.

어르신들의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신선한 즐거움을 드리하고자 참가자 모두에게 상을 주고 격려했다. 명품저음상(노래), 불타는 댄싱머신상(춤), 피카소상(그림), 심바상(색소폰), 옥구슬목소리상(시낭송), 구수한 이야기상(구연동화), 마음을울린상(하모니카) 등이다.

참가자들은 2~3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생활지원사를 통해 동영상을 찍고 최종 작품을 제출했다. 노래 뿐 아니라 춤, 그림, 색소폰, 시낭송, 구연동화, 하모니카, 서예 등 총 20가지의 분야에서 저마다의 재능을 뽐냈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4명에 대해서는 으뜸상을 수여했다. 전담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가 함께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상장을 읽어 드리고 소정의 상품을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이 넘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농작업대행사업’ 고령화된 농촌에서 적극적인 대안



밭 농작업대행사업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시행중인 농작업대행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작업대행사업은 농촌의 인력 감소와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농업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농작업을 시중 가격보다 절반이 안되는 평당 500원에 대행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 보다 30% 많은 신청자가 몰려 95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트랙터, 5톤 트럭, 관리기 등과 5명의 작업자로 이루어진 별도의 농작업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 사업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만 70세이상, 독거부녀농업인 및 5년이 안된 귀농귀촌자의 농지에 대해 500평 이하로 썬래, 두둑과 비닐 씌우기의 농작업을 수행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러한 사업이 소외되고 불편한 몸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볼 때 많은 보람을 느낀다”라며, “농촌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사업들이 정착되고, 보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화농업 알림이 ‘강화섬쌀 손 모내기 체험과 농·특산물 홍보’



강화농업알림이 모내기 행사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3일 강화읍 용정리 들녘에서 강화농업 알림이 사업의 일환으로 ‘강화섬쌀 모내기 행사’를 가졌다.

‘강화농업 알림이’ 사업은 강화농업의 우수성과 고품질 농·특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관내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올해는 소비자를 직접 초청해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서울특별시 소비자 단체를 초청한 손 모내기 체험과 농·특산물 홍보를 함께 진행했다.

행사를 주관한 농촌지도자강화군연합회에서는 행사에 참석한 내빈과 강화군을 찾아준 소비자 단체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강화농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나아가 강화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 등 농업소득 증대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저온이 지속되면서 냉해 등 피해우려가 있어 적절한 물관리와 온도관리를 통한 후기 못자리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최고품질 강화섬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말했다. ▣

슈퍼푸드 ‘품질우수’ 새콤달콤 강화섬토마토 출하 개시



강화섬토마토 출하

강화군에서는 현재 일반토마토와 방울토마토를 생산하고 있으며, 유럽계통과 동양계통 다양한 품종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2005년 재배를 시작한 강화섬토마토는 2023년 현재 강화, 불은, 하점면을 중심으로 117여 호(37ha)의 농가에서 연간 2천 톤 이상의 토마토를 생산해 약 30여억 원의 농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강화군의

대표적인 고소득 작물이다.

세계적으로 슈퍼푸드인 토마토는 각종 비타민과 칼슘 등 풍부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그중에도 일조량이 풍부하고 해양성 기후조건과 비옥한 토질을 갖춘 강화에서 생산되는 ‘강화섬 토마토’는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수도권 인근에서는 이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군에서도 품질 좋은 강화섬토마토 생산을 위한 스마트 첨단시설 및 농업기술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왔고, 토마토 재배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업기술력을 높이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과 재배기술 교육, 우수현장 벤치마킹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강화섬토마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고품질 토마토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연동하우스 스마트팜 시설, 과채류 에너지절감 패키지모델 등 신기술 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북부·남부인지건강센터 이용어르신 행복나들이 「치매 애(愛) 희망을 나누다」 치매극복 걷기행사 추진

강화군(군수 유천호)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난 4일 치매어르신들과 보호자와 함께 ‘행복나들이 치매극복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23년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 행사의 일환으로 치매예방에 좋은 걷기 실천하며, 치매극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치매애(愛) 희망을 나누다」라는 슬로건으로 추진했다.

코로나19로 야외활동에 제한적이었던 치매어르신들이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도록 나들길 2코스(호국돈대길)에서 진행했다.

군 보건소에서는 2018년 개관한 북부인지건강센터(하점면 위치)와 지난해 11월 개관한 ‘남부인지건강센터’(길상면 위치)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치매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강화군치매안심센터는 앞으로도 ‘노년이 아름다운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추진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하고 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치매안심강화’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복나들이 치매극복 걷기 행사’(사진제공 강화군 보건소)

군 관계자는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보호와 존중받으며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치매 가족도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

주택, 카페 등 개인 정원 대상, 5월 31일까지 접수 우수 정원 현판 수여 ‘23년 정원 콘테스트’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강화의 아름다운 정원을 발굴하기 위해 ‘2023년 정원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의 대상은 관내 주택과 카페, 음식점 등 개인이 조성한 정원을 소유한 강화 주민으로 신청한 정원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전문가의 현장심사를 통해 우수 정원 5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식물의 다양성 및 관리 상태 ▲정원의 조화성 ▲관광자원화 ▲정원문화 확산성 ▲정원의 지속성 등 5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우수 정원 현판을 제작하여 수여하고 정원 홍보 및 민간 정원 등록에 대한 기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콘테스트를 계기로 강화의 아름답고 우수한 정원을 발굴해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정원에 대한 인식 확산은 물론 전문성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아름다운 정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정원을 가꾸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 최벽하 기자

2023년 강화군 정원콘테스트 공모

- 접수기간** 2023. 5. 15. ~ 5. 31.
- 신청대상** 강화군 관내 주택, 상가, 펜션 등 개인이 조성 및 관리 하는 정원
- 신청방법** 방문·우편, 전자우편(e-mail)
 -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3층 산림공원과 녹지조경팀 정원담당자 앞(☎032-930-3876)
 - hej0409@korea.kr
- 신청자격** 공부상 정원 소유자
- 신청조건**
 - 정원으로서 아름답고 경관이 우수하며 다양한 식물종을 보유하고 있는 정원
 - 정원면적이 300㎡이상인 정원(단독주택은 200㎡이상)
- 신청서류**
 - 용모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용모대상 정원 사진(전경, 계절·테마별 사진 등) 2매 이상
- 심사일정 및 결과발표**
 - 심사방법 : 서류심사, 현장심사(5개소 선정)
 - 발표일자 : 2023년 6월 20일 예정
 - 선정혜택 : 우수 정원에 대한 안내판(현판) 설치 홈페이지 홍보 및 민간정원 등록 지원 등

GARDEN CONTEST

문의 ▶ 강화군청 홈페이지 및 산림공원과 ☎ 032) 930-3876
 신청 ▶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강화군 산림공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놀GO! 보GO! 배우GO!, 어린이날 행사 개최



어린이날 기념행사



버블벌룬쇼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7일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린 「놀GO!, 보GO!, 배우GO! 강화군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코미디 마술 마임쇼 ▲군악대 공연 ▲청소년 댄스 ▲버블벌룬 퍼포먼스 ▲뮤지컬 ▲동춘서커스 공연 등 다양한 무대공연을 선보였다.

무대공연뿐 아니라 어린이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장비와 차량을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병대군장비(개인군장·특수장비 및 피복 등), 경찰차, 소방·구급차 등 총 100여점의 군인·경찰·소방장비가 전시됐다.

드론체험, VR체험, 3D펜아트, 우주정거장 건축가, AI웹툰작가 체험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특히 에어바운스, 페달보트 타기, 어린이기차로 작은 놀이동산을 즐길 수 있었으며, 강화역사박물관에서 진행한 샌드아트 공연은 매회 만석을 이루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23,000여 명의 가족들이 방문을 하였다.

군 관계자는 “4년을 기다려온 어린이날 행사에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행복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어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강화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6. 3.~6. 4. 푸르른 계절 마니산 한겨레 얼 체험공원 플리마켓 개최

마니산관광지 내 단군을 테마로한 가족·체험형 공원 조성



한겨레얼체험관 외부

마니산은 서울에서 가깝고 가볍게 산행하기 좋은 산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 마니산을 산행만이 아닌 어린이 역사 탐방, 체험여행 등 가족, 연인들이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할 때 반만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고 이야기 하곤 한다. 이는 우리 시조가 단군이고 단군 연호를 쓰면서 갖게 되는 자부심 때문이다.

단군이 직접 단을 쌓으시고 하늘에 제를 올린 마니산 참성단은 남한 유일의 단군 유적으로 남한 유일의 단군 유적으로서 매년 개천대제를 봉행하고 성화를 채화하는 민족의 영산이자 성지이다. 마니산은 인천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강화의 넓은 평야와 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사계절 내내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인기 산행지다.

2017년부터 시작한 한겨레 얼 체험공원 조성사업으로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단군놀이터’, 참성단 재현 조형물이

있는 ‘개천마당’, 한민족의 통합과 화합을 염원하는 ‘천부인 광장’, 1955년 제36회 전국체전부터 성화가 채화된 것을 기념을 위한 ‘꺼지지 않는 불꽃 광장’, 1km 소나무 숲 산책길을 따라 힐링할 수 있는 ‘치유의 숲’, 단군과 마니산을 테마로 한 전시 체험시설인 ‘한겨레 얼 체험관’을 모티브로 최신 전시기술을 적용하여 조성했다.

제1전시실에 들어서면 바닥에 파도치는 영상을 따라 현대부터 고조선까지 시대를 거슬러 과거로 올라가며 첨성단의 제천의례를 모습을 소개한다.

제2전시실에는 단군신화를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과 곰과 호랑이가 움직이는 영상으로 재미있게 연출되어 있으며, 웹툰 강화도 전설이야기(삼랑성 단군과 세아들, 손돌목 전설 등)로 아이들이 재미있게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제3전시실은 3면을 활용하여 강화도 역사, 강화 진경을 주제로 영상이 상영되며 사람동작에 따라 반응하는 실감형 콘텐츠가 포함되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2023년 웰니스·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인천지역에 마니산이 선정됨에 따라 치유의 숲에서 ‘숲 해설사와 함께하는 숲 체험프로그램’을 4월부터 매주 토요일 2회씩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6월과 10월에는 공연 및 각종 행사를 위해 조성한 ‘마니광장’에서 강화지역 예술가들의 수공예품 및 농특산물 판매, 체험부스와 강화지역 문화예술인의 공연이 어우러지는 플리마켓을 열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새롭게 시설 정비를 완료한 마니산 한겨레 얼 체험공원에 플리마켓 행사와 치유의 숲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

8~9월 강화 교동도에서 뮤직페스티벌 개최, 화개정원·평화의 길 등 매력 홍보 인천시, DMZ 접경지역 평화관광 공모사업 1위...국비 7억 확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2023 DMZ 평화테마 공연 페스타' 공모사업에서 1위로 선정돼 국비 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강화군과 협업해 대한민국 DMZ 접경지역 중 유일한 '섬(아일랜드)' 지역이라는 인천만의 차별성을 부각한 'DMZ 평화랜드 뮤직페스티벌' 개최를 사업으로 제안했다.

'DMZ 평화랜드 뮤직페스티벌'은 Love(사랑), Eco(생태), Art(예술), Peace(평화)를 테마로 릴레이 음악 공연인 'DMZ 평화랜드 콘서트'를 통해 평화 관광지로의 새로운 도약(LEAP)을 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콘서트와 함께 DMZ 접경지역 걷기와 방문인증 이벤트 'DMZ 평화랜드 하이커', 지역관광 및 체험 홍보부스 'DMZ 평화랜드 홍보관'을 비롯해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시는 국비 7억 원에 시비 2억 원을 더해 총 9억 원을 들여 8월에서 9월까지 'DMZ 평화랜드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

히, 평화의 섬 강화 교동도에 5월 27일 개장하는 '화개정원'을 무대로 화제성 있는 공연과 강화·옹진의 생태관광 관련 전시 및 지역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해 평화관광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올 하반기에 개통될 예정인 'DMZ 평화의길 테마노선 강화코스'와 연계해 붐업을 조성하고, 강화군 내 주요 평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시리즈 버스킹 공연을 펼치는 등 인천시 DMZ 접경지역의 매력을 대외에 알리고 최고의 평화관광 명소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인천만의 차별화된 평화관광 테마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평화관광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여 평화관광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동도 화개정원



교동도 화개정원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3천만원 정책자금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최초 3년간은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한다.

이번 지원정책은 시가 지난 4월 19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피해 대상별 전방위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 제한 삭제, 최저 보증료율 0.5% 적용 등 자금 문턱도 낮췄다. 특히, 수요에 부족하지 않도록 신한은행이 특례보증 재원 4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고, 시 출연을 포함하면 대출규모는 150억원(은행 출연 50억 원)이다.

신한은행은 보증재원을 출연하며, 시는 보증재원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후 3년간 이자 1.5%를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자금은 총 2단계에 걸쳐 지원될 예정인데, 첫 번째 정책자금은 총 50억원 규모로, 5월 8일(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용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전세 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 전세피해확인서 : 전세피해지원센터(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4)에서 발급

※ (지원대상)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지원한도/상환기간) 3,000만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금리) 변동금리 * CD금리+1.5% (이자지원) * 최초 3년간 1.5%

신속 지원을 위해 예약 없이 대표자 본인이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보증 상담 후 신청 문의 ▶ 1577-3790

불은면 심현중 이장,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 수상



불은면 심현중이장 표창

강화군 불은면(김용수 면장)은 삼동암1리 이장 심현중 씨(56세)가 제51회 어버이날 맞이 효행자로 선정되어 강화군수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현중 이장은 평소 부모님의 노환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봉양해 지역주민의 귀감이 되어왔다. 또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마을 이장으로 일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이번 효행자로 선정되었다.

이날 심현중 이장은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큰 상을 받게 되어 몸둘 바를 모르겠다.”면서 “앞으로도 노인을 공경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살피며 효친 사상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화군과 함께 행복한 가정의 달 되세요!

강화군, '감사해孝, 아이 Love U' 추진



감사해孝 아이러브유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아동복지시설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감사해孝, 아이 Love U'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강화군 저소득 가구를 위해 기부한 강화사랑연합모금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5일 어린이날에는 관내 아동복지시설 계명원 아동·청소년들에게 신발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선물은 그간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매장을 직접 방문해 신어보고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했다. 어버이날에는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에 카네이션과 쌀국수를 지원해 따뜻한 5월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천호 군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주위 이웃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강화사랑연합모금을 통한 기부 동참하신 분들께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기탁된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어르신들과 함께라서 늘~행복합니다!’

강화군노인복지관, '행복가득 어버이날 감사 효(孝)축제!'



노인복지관 어버이날감사효 축제

강화군 노인복지관(관장 윤심)은 지난 10일 어버이날을 기념해 효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감사 효(孝)축제'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난타, 우크렐레, 장수댄스 등의 발표와 초대가수의 노래, 경품까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우선 '포토존'을 예쁘게 꾸며놓고 카네이션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했으며, 샌드위치 만들기를 체험하는 '행복한 셰프', 그간 고생하신 어르신들의 손을 예쁜 손으로 꾸며 드리는 '섬섬옥수 네일아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윤심 관장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에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어르신들과 함께해서 늘 행복하다”라며, “앞으로도 노인복지관 전 직원이 합심하여 매 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6명의 이중언어 강사 파견 강화군가족센터, 결혼이주여성 원어민 강사 파견



가족센터(강화군어린이집 대만어 수업사진)

강화군가족센터(이하 '센터')는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를 관내 지역 아동센터와 어린이집 등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내에서 영유

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자녀의 정체성 확립 및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지원을 돕는 사업이다.

이중언어 원어민강사 파견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의 인력풀을 활용하여 추진한다.

센터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중언어 자격증 3급 취득과정을 통해 인력 풀을 양성하여 모로코, 대만, 중국,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총 6명의 이중 언어 강사 인력풀을 보유 중이며, 추가 양성과정은 8월 추진 예정이다.

이중언어 원어민강사 파견은 결혼이주여성이 출신국 언어를 활용해 학교나 기관 등 현장에 파견되어 언어를 알리는 서비스다. 기관당 총 10 회기로 구성하며, 쉬운 단어부터 발음, 기초 문장을 A부터 Z까지 노래와 게임 활동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구성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신감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관내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

길상면발전협의회, 화합과 사랑의 LED 연등탑 점등식



길상면발전협의회 연등탑 점등식

길상면발전협의회(회장 김홍식)에서 지난 9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온수리 회전교차로에 '화합과 사랑의 LED 연등탑' 점등식을 가졌다.

김홍식 회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전등사 지주 여암스님과 우리마을 원순철 세실 신부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길사모 대외협력 봉사팀장인 민준기 씨의 재능기부와 관내 단체 및 개인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연등탑을 설치해 더욱 의미 있었다.

이날 김홍식 회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LED 연등탑 점등식을 통해 길상면의 발전과 화합을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강화도서관, 2일부터 북스타트 사업 운영 강화군, 책으로 아기와 소통해보세요!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오는 5월 2일부터 2023년 북스타트 운동의 일환으로 영·유아 등 아동을 위한 책꾸러미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북스타트 운동'이란 그림책을 매개로 아이와 양육자 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고 독서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환경을 지원하는 운동이다.

연령별로는 1단계(생후 0개월~18개월), 2단계(생후 19개월~35개월), 3단계(생후 36개월~7세), 4단계(8~9세)로 나누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었다.

이번에 군에서 배부하는 책꾸러미에는 그림책 2권, 북스타트 가방, 가이드북이 포함되어 있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강화도서관에서 현장 수령이 가능하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 - 최벽하 기자

문의 ▶ 강화도서관 ☎ 032) 932-8264
강화도서관 홈페이지 lib.ganghwa.go.kr

2023 강화도서관 Bookstart 북스타트

PART 01 배부기간
5월 2일(화)부터 소진 시까지

PART 02 배부장소
강화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

PART 03 배부대상
인천시·강화군 거주하는 0세~최소 7세 영유아·초등학교생(1~6학년)

PART 04 배부방법
① 대상 아동의 도서관 회원가입(미가입자) - 기존 가입자도 수행가능 - 단계에 맞는 책꾸러미 수령

PART 05 준비서류
보호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북스타트 1단계 (0-18개월)

북스타트 2단계 (19-35개월)

북스타트 3단계 (36개월~취학전)

북스타트 4단계 (초등학교생)

문의 932-8264

기고

이경수

몽골의 침략과 강화 천도



간척으로 형성된 망월 들판

거란·여진·몽골

조선시대의 전쟁이라면, 우리는 임진왜란(1592), 정묘호란(1627), 병자호란(1636)을 떠올립니다. 그렇습니다. 큰 전쟁은 이게 다예요. 조선 건국(1392) 이래 임진왜란 때까지 200년간 대규모 전쟁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보기 드문 장기간의 평화 시대였어요. 병자호란 이후 다시 전쟁 없는 시대가 계속됩니다.

고려는 아니었습니다. 건국 초부터 멸망 시기까지 거듭 큰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때 국제 정세가 전쟁을 부르는 시대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송나라였어요. 문화, 경제적으로 번영했으나 군사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는 북방민족의 거듭된 침략으로 시련을 겪다가 결국은 몽골에 망하고 맙니다. 고려 역시 북방민족의 침략을 당합니다.

북방민족, 그들은 대개 만리장성 이북에 살았습니다. 기후가 차가워서 농사보다는 사냥과 유목 생활을 주로 했습니다. 풀 찾아 가축을 옮겨야 하는 유목민족은 말을 잘 탑니다. 자연스럽게 강력한 기병(騎兵)이 됩니다.

먼저 두각을 나타낸 민족이 거란입니다. 그들은 요나라를 세웁니다. 10세기~11세기, 거란의 침략을 막아낸 고려의 인물이 서희요, 강감찬입니다. 이어서 12세기는 여진입니다. 그들은 금나라를 세웁니다. 거듭된 침략에 맞서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합니다. 13세기는 몽골의 시대입니다. 이제 고려는 그들과 긴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몽골제국의 영역

세계 역사상 가장 강한 군사력으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나라가 칭기즈칸의 몽골입니다. 그들의 말발굽에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의 러시아, 중국, 동유럽에 이르는 거대한 영토를 몽골이 장악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일하게 몽골의 침략을 견뎌내고 나라를 지킨 곳이 있으니, 바로 고려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기 쉽지만, 세계사 관점에서 볼 때 특별한 사건입니다.

장기 항전의 비결

고려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의 승고한 저항 덕분입니다. 가족을 지키고 마을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고 그 강한 몽골군에 맞서 끈질기게 싸웠습니다. 몽골군이 고려와만 전쟁하던 것이 아닙니다. 고려를 침략하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들도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영역을 확대하면서 저항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성을 점령하면, 아기도 노인도 다 죽였습니다. 대신에 미리 항복하면 손대지 않았습다. “덤비면 다 죽인다, 항복하면 모두 산다. 안 죽인다!” 널리 널리 소문냈습니다. 효과가 컸습니다. 미리 겁먹고 항복하는 곳이 많아서 그냥 무혈입성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에서는 그게 먹히지 않았습다. 저항하는 이쪽 성을 함락하고 다 죽이고 불태우고 저쪽 성을 공격합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바로 항복인데, 고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 죽여봐라, 이놈들아.” 고려의 백성들은 더 악착같이 맞서 싸웠습니다. 처인성 전투처럼 승리한 전투만 강조할 일이 아닙니다. 결과를 떠나서 외적을 물리치겠다는 백성들의 강력한 의지 자체가 소중했던 것입니다. 나라를 지켜낸 비결입니다.

고려가 망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 바로 강화 천도입니다. 만약 개성에서 강화로 도읍을 옮기지 않았다면, 임금과 신하들이 그대로 개성 궁궐에 있었다면, 병자호란 때 겪었던 ‘삼전도의 굴욕’보다 훨씬 큰 고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고려는 몽골의 일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무신집권의 실권자인 최우의 주도로 강화 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강화는 고려의 도읍이 되어 강도(江都)로 불리게 됩니다. 개성이 송도로 불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명확하지



강화도 갯벌

않으나 강화가 고려 때 '심주'로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천도 이후 강화를 '심도'라고도 했습니다. 심도직물의 그 심도입니다. 지금은 심도중학교, 심도파출소에 그 이름이 살아있습니다. 한편 개성을 개경이라 했던 것처럼 천도 이후 강화를 강화경(江華京)으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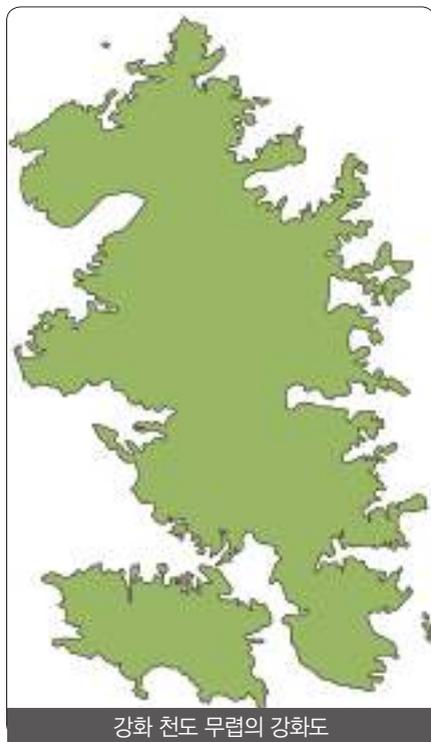
강화 지도가 바뀌다

몽골군은 수십 년 전쟁 기간 강화를 한 번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강화의 고려 정부는 전국의 대몽항쟁을 지휘하며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육지 백성을 버려두고 이루어진 천도였습니다. 비겁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한 적에 맞서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천도였습니다.

자, 여기서 국사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가시죠.

다음 중 고려 조정이 개성에서 강화로 천도한 이유가 아닌 것은?

- ① 개성에서 가깝다.
- ② 물을 겁내는 몽골군이 침범하기 어렵다.
- ③ 갯벌이 천연의 방어망이 될 수 있다.
- ④ 논이 넓어서 식량 공급이 수월했다.



강화 천도 무렵의 강화도

정답은, ④번입니다. 강화로 천도할 무렵, 강화에는 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강화 주민 상당수가 어업에 종사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넓은 논 대개가 대몽항쟁 막바지, 그러니까 강화 천도 후반기부터 시작된 간척의 결과로 생긴 것입니다.

강화로 천도할 때 왕실과 신하들만 옮겨 온 것이 아닙니다. 개성에 살던 사람들 상당수가 강화로 왔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10만 명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먹고살았을까요?

경상도, 전라도 등지에서 몽골군 간섭 없는 바닷길을 통해 강화로 곡식 등을 공급했습니다. 세금이 거의 정상적으로 징수되고 있었습니다. 365일 전투가 벌어진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기에도 백성들은 농사를 지었고, 또 세금을 냈습니다. 나라의 통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결과이지만, 백성의 힘도 참 대단했습니다.

몽골과의 전쟁이 끝나고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인 1280년(충렬왕 6), 그때 나라의 재정 수입이 대몽항쟁기 강화도 정부 때보다 더 적었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보입니다. 공민왕 무렵 나라의 재정 수입이 강도 시절의 30% 정도에 불과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좀 과장돼 보이기는 하나, 이를 통해 강도 정부의 재정 상태가 나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 상황이 변합니다. 강화로 세금을 비롯한



일제강점기의 고종왕릉 홍릉(출처 국립중앙박물관)

각종 물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몽골의 침략이 더 집요해져서 육지 백성들이 농사짓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강화도 조정의 세금 독촉이 심해지자 백성들이 분노했습니다.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강화 안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올 만큼 식량 사정이 나빠졌고, 그래서 강화에 논을 만들기 위한 대규모 간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256년(고종 43) 2월, 고종이 명령합니다. “〈강화의〉 제포와 와포에 독을 쌓아 좌둔전으로 삼고, 이포와 초포는 우둔전으로 삼도록 하라.” 이렇게 간척이 시작되었어요.

조선시대에도 간척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조선 숙종(1674~1720) 때에 이르면 강화의 땅 모양이 지금과 거의 비슷해집니다. 화도면 마리산이 고가도라는 별도의 섬이었는데 숙종 때 본섬과 붙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대에도 강화도 간척은 계속됐습니다. 섬 크기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큰 섬으로 말해지던 강화도가 지금은 네 번째가 되었습니다. ①제주도, ②거제도, ③진도, ④강화도, ⑤남해도, 이렇게 됩니다.

대몽항쟁 기간

강화도 조정, 간척까지 하면서 고난을 극복해보려고 했으나 제반 여건이 모두 나빠졌습니다. 항쟁을 더는 지속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59년에 몽골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사실상 항복입니다. 그런데요, 고려의 대몽항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딱 잘라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보지요.

몽골의 본격적인 침략은 1231년(고종 18)에 시작됐습니다. 강화도 천도는 1232년(고종 19)입니다. 몽골과 화친조약을 맺은 게 1259년(고종 46)이라고 했지요. 이제 항복했으니, 개경으로 환도해야 마땅합니다. 도움을 강화에서 다시 개경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 갑니다. 몽골이 어서 환도하라고 재촉했지만, 안 갑니다. 항쟁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270년(원종 11)에 가서야 개경 환도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개경 환도를 반대하며 삼별초가 봉기합니다. 삼별초는 강화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제주도로 옮겨가며 몽골과의 전쟁을 계속합니다. 뜨겁게 싸웠습니다. 삼별초가 진압되는 것은 1273년(원종 14)입니다.

화친조약 체결까지를 대몽항쟁 기간으로 보면 1231년부터 1259년까지 29년간이 됩니다. 개경 환도 때까지 항쟁 기간으로 보면, 1231년부터 1270년까지 40년이 됩니다. 삼별초 항쟁까지 포함하여 대몽항쟁 기간을 계산한다면 1231년부터 1273년까지 43년이 됩니다. 그래서 대몽항쟁 기간을 말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강화도읍기는 명확합니다. 1232년부터 1270년까지 39년 동안 강화는 고려의 수도였습니다. 

칼럼

익명 匿名



김학준
전) 서울신문 기자

서울의 한 회사는 온라인 직원대화방을 완전 익명제로 전환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인사나 진급에 대한 불만, 동료 및 상사에 대한 인신공격, 타 부서와의 업무 갈등 등이 여과없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음해성 정보가 사실처럼 퍼지면서 해당 직원이 피해를 입고, 조직 내부의 민감한 정보를 폭로하는 통로로 이용되기도 했다. 댓글 또한 거칠고 저급한 경우가 많아 분란의 요인이 되자 회사 측은 2년만에 실명제로 환원시켰다.

지난해 신도시 땅 투기 문제가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직장인 익명 게시판(온라인)에 “우리는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 있으나”, “투기 의혹이 제기된 땅은 누가 개발해도 언젠가는 개발될 곳이었다”라는 글들을 올렸다. 실명제였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글을 올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은 엉망이 된지 오래다. 비난·욕설·협박이 일상화된 댓글, 희한하고 저질스러운 조어(造語)는 기본이다. 익명성을 무기삼아 불확실한 정보를 퍼나르고,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이 난무한다. 편향된 이념에 매몰된 확증편향자들이나 특정 정치 세력과 연관된 댓글부대의 놀이터가 됐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린다. 포털 운영자는 지나친 댓글은 삭제하는 등 자정 기능을 펴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등재된 글들을 보면 “걸러낸 게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악성 댓글(악플)은 너무 파괴적이라 역기능이라는 말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사람까지 잡는다. 악플에 상처받고 우울감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하나둘이 아니다. 심각한 사안은 경찰이 IP 추적을 통해 수사를 펴지만 워낙 대상자가 많은 데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처벌규정이 애매해 가해자 단죄가 쉽지 않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최대 35조원에 이른다. 막연하게만 문제로 인식됐던 악성 댓글이 실제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소셜 계정 접속 기반 댓글 서비스 ‘라이브리’를 운영하는 시지온은 우리나라 댓글 문화의 건강한 성장과 정착을 위해 힘쓰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댓글 이용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인터넷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건전한 댓글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그렇다면 10년 넘게 댓글 생태계를 관찰해온 김미균 시지온 대표는 우리나라 댓글 문화 추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는 “일부 퇴보하고 일부 진전됐지만 전반적으로 댓글 문화는 성장하지 못했다. 악성 댓글 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수위도 낮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의미 있는 댓글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영혼까지 무릎 꿇게 하는 악성 댓글의 비중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20년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이 악성 댓글 문제를 해소

한다는 취지로 연예·스포츠 뉴스 댓글 기능을 없앴지만, 그 효과는 사실상 없었다고 평가했다. 포털 뉴스에서만 보이지 않을 뿐, 언론사 댓글창과 커뮤니티 등으로 옮겨갔다는 설명이다. 악플러들에게 배설 공간을 제공해온 포털 사업자들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는 소극적이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적이 더 무섭고, 모습을 숨길 수 있는 적은 더 잔인해질 수 있는 법이다. 익명 뒤에 숨어 악의적인 감정과 허위 정보를 멋대로 배설하는 것보다 비겁하고 추한 것은 없다. 고양이를 피해 다니는 생쥐처럼 사이트를 이동해가며 마우스로 더러운 글을 양산해내는 그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 할 수 없다. ‘인터넷 실명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만큼 인터넷 공간이 오염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즘 방송에서는 악성 댓글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교육방송(EBS)에서 신상훈 유머소통 강사는 “악성 댓글은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고 말했다. ‘호환’은 호랑이에게 화를 입는 우환이고, ‘마마’는 전염병(천연두)으로 예전에는 예방 및 치료수단이 없었다. 혹 운이 좋아 살아나더라도 얼굴에 곰보자국이 생긴다. 때문에 가장 무섭게 여겨졌는데, 이보다 더 무섭다니 긴 말이 필요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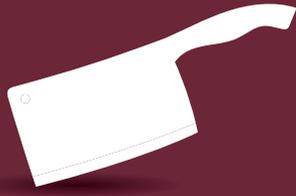
지난주 방송에서는 중국의 세계적인 소설가 ‘위화’ 역시 댓글의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유머라도 있어야 위험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인터넷에 떠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소재로 한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배우(코미디언) 출신이다. 때문에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심되었다.

하지만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국제 사회의 존경을 받고 있다. 최전방으로 가 장병들을 격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험을 무릅쓰고 전투를 직접 지휘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그를 중심으로 단단히 결속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여겨지는 전쟁에서 선전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터프가이로 통한다. 자신은 시베리아의 차가운 강에서 수영하고 호랑이와도 마주쳐 봤다고 말했으며, 운동으로 단련된 근육을 과시해 왔다. 그가 경주용 자동차나 제트기를 직접 몰고, 옷통을 벗어젖히고 말을 타는 사진이 언론에 배포되기도 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상남자’ 행세를 했다.

그러나 전쟁 발발 후 계속 크렘린궁에만 머물다가 얼마 전에야 점령지인 크림반도를 방문했다. 전쟁이 일어난 뒤 처음이다. 코로나 기간에는 크렘린궁에서 지나칠 정도로 격리생활을 했다. 정부 관료들과 대부분 화상회의를 진행했으며, 외국 고위 인사가 방문해도 푸틴과 대면할 수 없었다.

이를 빚대 중국 인터넷에서는 “배우(젤렌스키)는 터프가이였고, 터프가이(푸틴)는 배우였다”는 말이 나돈다고 한다. 인터넷 글이 품격을 갖추던지, 아니면 최소한 이 정도 유머 감각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



부부정육점

PREMIUM QUALITY

꼬깃집 정육식당



이젠 먹고싶은 고기를 바로 골라먹으세요!

취급품목

한우, 한돈, 수입육, 부산물 예약판매
(2만원 이상 배달가능)
매주 목요일 소고기 들어오는 날

계좌 국민 9933 9245 058 (김선미)
농협 351 1140 7424 (홍상의)
예약우선제 (테이블이 적어요)

대표 **홍상의 김선미**

MOBILE. 010-8200-7194

TEL. 032-933-9245

ADD.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룡길 57



보다 나은 인쇄와 광고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합니다!

명함 · 달력 · 상패 · 스티커 · 전단지 · 청첩장 · 포스터 · 책
봉투 · 인쇄 · 복사 · 코팅 · 팩스 · 제본 · 행사홍보기념품 제작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구비

SS 삼성인쇄광고기획

☎ 032)934-7778 / 010-6608-777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2 (강화군청 후문 강화경찰서 앞)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